

이충형 교수님께,

본격적인 논증에 앞서, 저에게 자세한 논증을 통해 입장을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논리적 치밀함이 충분히 충족된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논리적 치밀함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부족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 명확한 이유를 (오지선다 형식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명확히 고를 수 있는 이유) 설명하는 것을 논리적 치밀함보다 더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치밀함의 부족은, 수능 응시생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교과 외 철학적 배경지식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논증의 심화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더 치밀한 논리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사고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번 의견에서는 그동안 제가 미처 다루지 못 했던, 논리적 치밀함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논증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수님의 입장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의 논증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논의를 교수님께 재차 전해 드리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반드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논의가 교수님께 새로운 담론을 통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손태랑 올림

최신으로 공개해 주신 논증에 대해, 재반박을 할 수 있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의 오류를 증명함으로써 재반박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거)

위 상저의 (3)은 당연히 칸트 이전 견해에 따르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서 말한 점입니다.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③에서 말하는 갑의 입장은 ‘갑의 입장’. 갑이 생각하는 자기의 입장입니다. 갑은 앞에서 논증했듯이 (1)이나 (2)의 생각을 하고 있지 (3)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선생님의 해석은 부적합해 보입니다. 칸트 이전 견해뿐만이 아니라 (3)은 소위 사소하게 거짓인 주장입니다. ‘생각하는 나’는 적어도 주어진 순간에 인격일텐데,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가 t2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와 하나의 동일한 존재이면, 당연히 인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갑이 이를 부인하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1)이나 (2)의 주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갑은 (3)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1)이나 (2)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전제의 오류를 증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증명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갑이 이를 부인하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제에 대한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논의가 다른 쟁점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교수님께서 최초부터 전개해 오신 논증이 근본적으로 반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근본적인 논거인데, 다른 쟁점으로 논의가 맴돌다 보니 교수님께서 매우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답답하심을 뒤늦게 깨달은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먼저, <보기>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문장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문장은 이 주장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수능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모두 맥락에 충실하게 작성된다." 지금부터 이 전제(이하 '대전제')를 바탕으로 논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파란색 문장은 '갑'이 노란색 문장과 같은 판단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문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추론해선 안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해석이 도출됩니다.

- 1) 갑은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가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이는 교수님께서 그동안 논증하셨을 때 사용한 전제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 2) 갑은 '프로그램 재현'을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3) 갑은 2)의 이유를 '살아 있는 신체'라는 인격의 구성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 2)는 지금까지의 논의 동안 이견의 여지가 없었던 해석입니다. 그런데 3)이 문제입니다. 갑이 '프로그램 재현'에서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유로 <'살아 있는 신체'라는 조건>의(이하 신체) 미충족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논리적으로 가능한 설명은 두 가지가 됩니다.

- 갑은 '프로그램 재현'이라는 사례를 보고,
- ① 신체가 충족되면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 ② 신체가 충족되더라도, 다른 조건까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전개하신 "'개체'와 '속성'의 구분을 통한 오류 증명"이 성립하려면, ②로 해석해야 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②로 해석한다면, <보기>에서 갑이 이야기한 내용은 맥락이 형성되지 않아 위에서 이야기한 '대전제'를 위반합니다.

즉, 갑은 <보기>의 문장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서술해야 합니다. 만약에 갑이 ②라고 생각했다면, <보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갇이 신체 이외의 조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체'의 충족) 필요하다고 보았다면, 갇은 저렇게만 이야기 했을 리가 없습니다. 즉, 교수님의 주장이 성립 할 수 있는 <보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갇: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개체가 아닌 속성이 지속되어야 할뿐더러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갇: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단일한 주관으로 지속되어야 할뿐더러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갇: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영혼이 지속되어야 할뿐더러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이렇게 서술했다면, 교수님께서 해석하신 갇의 주장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보기>는 "갇이 이를 부인하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처럼 '멍청한 갇'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보고 논증하셨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과 저의 논증에서 서로의 전제가 충돌합니다.

<이충형 교수님의 전제>

1. <보기>에 '개체'와 '속성'을 구분하지 않는 (혹은 모르는) '멍청한 갇'은 존재할 수 없다.
즉, 갇은 '프로그램 재현'에 대해서 '개체'만 지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에 한정하면 '칸트 이전'과 입장의 차이가 없다.
결론: '칸트 이전'에 의하면 갇의 입장은 옳다. (정답 없음)

<손태량의 전제>

1. '멍청한 갇'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이다.
2. 갇은 <보기>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서술해야 한다.
즉, 갇은 프로그램 재현을 개체가 지속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갇이 말하는 개체의 지속은 갇은 '칸트 이전'이 말하는 '영혼'의 지속과 같다.
결론: '칸트 이전'에 의하면 갇의 입장은 옳지 않다.

③에서 말하는 갇의 입장의 손태량 해석:

(3) <적어도 두 개의 시점 t1, t2에 대해, t1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가 t2에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와 하나의 동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저의 이 해석이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논증이고, 기존 수능의 경향과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는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제이고 교육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재현'이라는 사례를 보고,

- ① 신체가 충족되면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 ② 신체가 충족되더라도, 다른 조건까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기 저의 논증은 그동안 수능에서 일관되게 보여 온 맥락 해석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논증을 할 때 ②의 해석은 '대전제'를 위반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또 다시 논리학적으로 치밀하진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1. 이 문제는 학생이 시간 내에 100% 논리학적 치밀함을 갖추고 답을 도출할 수 없다.
2. 이 문제는 수능과 고교 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오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문제는 학생들이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다.

3.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상기 논증을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맥락을 통해서만 해석한다'라는 수능의 '대전제'를 지킨다면 이는 오류의 여지가 '0'이기에, 수능 문제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이 강조해온 내용에 의해 충분한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원이 배포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4.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은, 최초로 이 논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능의 출제 경향에 따르면 아주 무난하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반응을 들어 보면 대체로 교수님과 제가 논의한 쟁점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조차 못한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적용·창의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성·조직·표현·수정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독서의 방법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위와 같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서의 방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요소를 측정하는지를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즉, 필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독서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A의 해설에 대한 후기

↳ b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

↳ a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

↳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

(단, "#~#"는 명어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와 ㉣은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④ ㉤와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⑤ ㉦, ㉧, ㉨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었군.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지문과 <보기>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적절성 판단하기,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이 글에는 마침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용, 창의 요소를 평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맥락, 즉 <보기>에서 제시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보기>의 맥락을 무시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전체 글의 내용이 과한 추론을 요구했다는 차원과 무관하게,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했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이 선지를 중의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평가원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의도에 벗어난 내용까지 추론해야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듯) 최종적으로 정답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칸트 이전'이 값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 옳다고 보겠는지> + <'칸트 이전'이 값의 전체적인 입장 자체에 대해 옳다고 보겠는지> 둘 모두로 볼 수 있는 중의성을 가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들로 선지를 구성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중 윗글의 입장들이 보기의 입장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칸트 이전: 갑은 생각하는 내가 지속해도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구나. 그런데 갑의 주장에는 내가 설명한 인격의 동일성의 조건과 다른 조건이 존재해.

칸트 이전: 갑의 주장 중에서 '살아 있는 신체'까지 인격의 동일성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의 주장과 다르네.

“평가원은 위와 같이 중의적이지 않으면서도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교육적 취지에 어긋나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교육적 함의, 논리적 오류 검증, 철학적 논리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잘못 논증한 내용이 있다면, 교수님의 교정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